

SRI

정책리포트

2020. 11. 26.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항목 분석 및 제언

이 영 안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yalee@suwon.re.kr

요약

- 수원시가 2021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로 인증받기 위한 준비로 아동영향평가 실시
- 지역사회에서 존중,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참여, 지역사회에서 건강과 교육 보장, 지역사회에서 안전과 보호, 지역사회에서 여가와 가정생활 보장 등 5개 영역별 영향평가를 미취학 아동 보호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

정책제안

- ①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계된 아동영향평가 제도 구축
- ② 아동영향평가 전담인력 확보
- ③ 저 연령인구 맞춤형 홍보 전략 수립
- ④ 저 연령인구에 대한 정책참여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제공
- ⑤ 학교 밖 아동 관련 시설에 대한 홍보 강화

KEYWORD_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영향평가

수원시정연구원 수시보고서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수원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수원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지역사회 아동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내·외 많은 지방정부에서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실현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있다.
-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통해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정책수단 마련이 필요하다.
-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모든 국가들이 아동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동권리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도구로 아동영향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 아동영향평가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법과 제도, 예산 등이 아동권리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의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인식 제고에 기여한다.
- 이에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과정에서 실행된 아동 관련 법과 정책, 사업들이 아동의 삶과 권리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영향평가’ 체계를 개발하였다.
 - 이러한 영향평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자체 사업과 정책을 평가하고 추진 전략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도구가 된다.

2 연구의 목적

- 수원시는 지난 2017년 9월 UNICEF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고, 수원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 상위단계로 인증받기 위한 준비 중이다.
- 수원시가 상위단계로 인증받기 위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는 수원시에서 추진 중인 법과 정책 및 사업이 아동의 삶과 권리에 미친 실질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 따라서 앞으로의 사업과 정책 개선에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편 향후 전략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아동 관련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들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II.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아동친화도시

-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조성이 강조되면서 등장한 개념이며(이영안, 2019), 학자별로 상이한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표 1] 아동친화도시의 개념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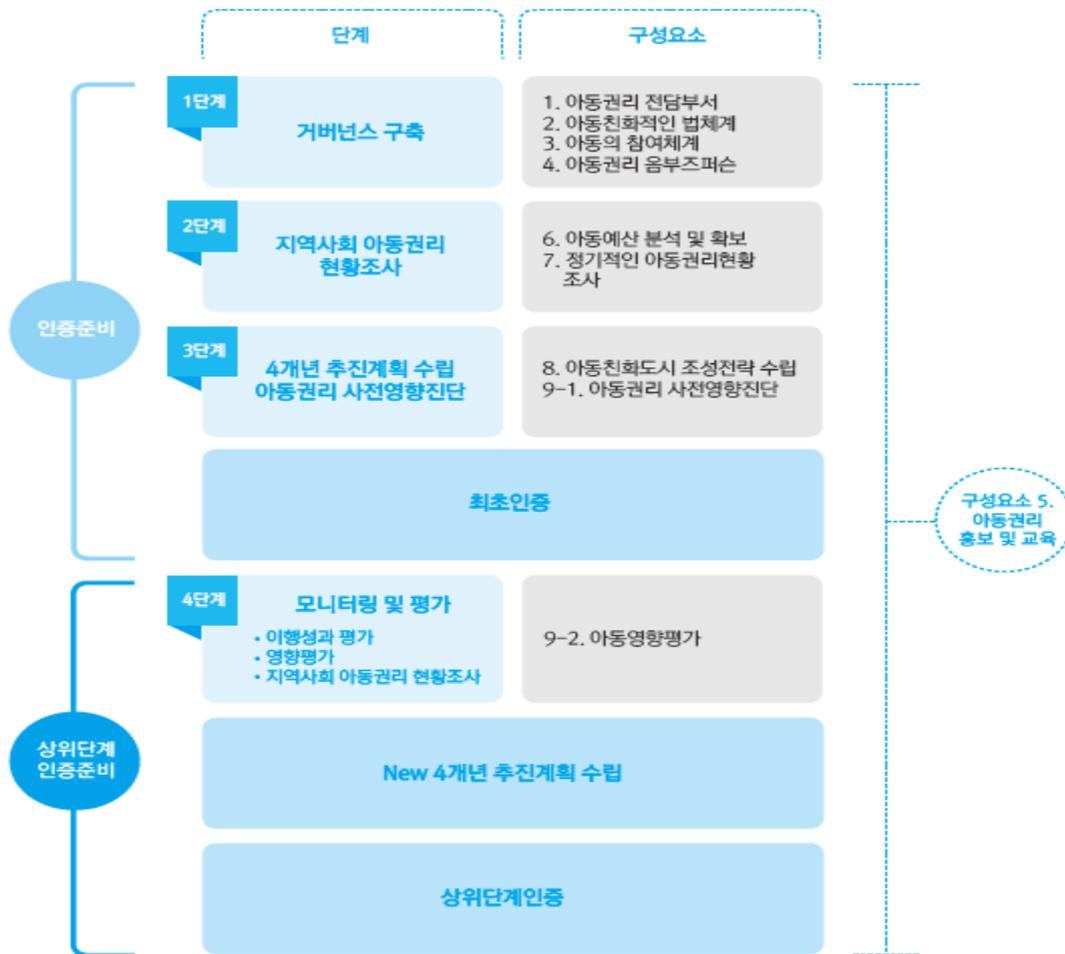
구분	개념
Riggio(2002)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웰빙(well-being)의 최적화가 이루어지며,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
Malone(2004)	아동과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과 서비스가 갖추어진 사회
홍승애(2013)	아동의 기본적 생존권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참여할 권리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시설과 제도, 서비스가 충분히 마련된 도시
황옥경·김영지 (2011)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청소년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도시
UNICEF(2015)	UN 아동권리협약이 지방정부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도시, UN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기본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도시
남승연·이나련 (2016)	아동의 기본적 생존권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참여할 권리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시설과 서비스가 충분히 마련된 도시
수원시 조례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

-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을 적극적인 지역사회의 행위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실천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이영안, 2017, p.13).
- 아동친화도시 실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은 아동친화정책으로 구체화 될 수 있으며, 아동친화정책은 지역사회가 아동의 권리보장 및 성장·발달 지원,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련의 권위있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이영안·이홍재, 2018, p.191).
- 한국에서는 2013년 서울시 성북구가 국내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2020년 10월 21일 현재 총 47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53개

도시가 인증추진 중이다.¹

- 수원시는 지난 2017년 9월에 UNICEF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해오고 있다.
- UNICEF의 아동친화도시 사무국(Innocenti Research Centre, IRC)은 모든 아동이 동등한 혜택을 받고 이들의 사회적 참여를 지지하는 다음과 같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남승연·이나련, 2016, p.26; 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9, p.8).
- 아동친화도시는 거버넌스 구축, 정기적인 지역사회 아동권리 현황조사,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및 사전영향진단, 모니터링 및 평가 등 4단계의 추진 로드맵에 따라 조성되며 아동친화도시 9가지 구성요소는 [그림 1]과 같이 추진 단계에 따라 분류된다.

[그림 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이클



자료: 유니세프한국위원회(202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영향평가 매뉴얼 p.15

1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http://childfriendlycities.kr/>)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영향평가

- Freeman(1987)은 정책과정에서 특정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검토·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아동영향평가(child impact assessment)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이영안 외, 2019, p.33).
- 이후 국내외 학자 및 관련 조례 등을 통해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2] 아동영향평가의 개념 정의

구분	개념
Hanna et al. (2006)	그동안 정책 개발이나 실행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너무나 쉽게 간과되어왔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공정책의 장에서 아동 가시성을 높이는 것
Sylwander (2001)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분포를 파악하는 도구, 절차, 방법 혹은 그 조합
Corrigan (2006)	법령이나 장기 계획, 세부단위 사업 등 어떠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등이 모든 아동 또는 특정 유형의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
황옥경·김영지 (2011)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청소년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도시
Whalen et al. (2015)	정책, 입법 또는 기타 정부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에 미치는 모든 잠재적, 직·간접적 영향들을 밝히고, 분석, 평가하는 도구
박영균·조흥식 (2014)	아동·청소년 영향평가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 그 상태를 규정짓거나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작용에 대하여 미리 마련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가치나 수준을 따져보아야 하는 일
서영미(2016)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 법령, 프로젝트나 혹은 제안 같은 것이 결국 어떤 특정한 집단의 아동이나 혹은 일반적인 모든 아동에게 직접적으로나 혹은 간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

- 아동영향평가의 기본 가정은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법, 제도, 예산자원, 다양한 행정적 의사결정 등이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이 모든 영역의 정책결정 과정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사전적으로는 아동 관련 법률과 정책, 예산배정, 업무수행 등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아동권리 및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 사후적으로는 아동 관련 법률과 정책, 사업 등이 집행된 후 아동에게 미친 실제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효과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아동영향평가는 2016년 3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제11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동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명시하고 있다.
 - 2019년 1월에 개정된 내용에서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위탁 및 평가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서는 아동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기 법적 근거를 토대로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관련 조례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다.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구성요소 중 ‘아동영향평가’는 1) 이행성과 평가 2) 지역사회 아동권리 현황조사 3) 영향평가를 통칭하는 것이다.
- 『이행성과 평가』는 매년 이행과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이행 경과와 분석 결과를 작성해 각 지자체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 보고하는 과정이다. 지자체가 계획한 중점과제 4개년 추진계획과 유니세프가 심의 과정에서 권고한 사항이 바로 이행과제에 해당된다. 『이행성과 평가』에서는 이행과제의 구성요소별 달성률, 최초 계획한 목표에서 미달되거나 초과 달성된 과제의 상황, 개별 이행과제의 기대효과 실현 여부 등을 파악하게 된다.
 - 『지역사회 아동권리 현황조사』에는 지자체 일반현황조사, 아동친화도조사, 시민의 견수렴조사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가 보유한 아동관련 자원과 행정 현황을 살펴보고, 아동권리 실태를 6개 영역(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 환경, 주거 환경)에서 파악하게 되며, 현황조사와 아동친화도조사 결과를 기초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방향을 설정해 구체적인 과업을 마련한다.
 - 『영향평가』는 지자체에서 수립한 아동 관련 법, 정책 및 사업이 아동친화도시의 9가지 구성요소의 충족 여부와 아동친화도시 5대 목표 및 20개 세부목표 달성 상황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행정체제와 제도를 갖추었는지, 사업과 정책들이 아동친화도시 목표에 맞게 운영되는지, 아동의 삶과 권리 증진에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렇듯 영향평가는 상위 단계의 인증 과정에서 지자체의 새로운 전략 수립과 과제 도출에 도움을 줌으로써 향후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개선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Ⅲ.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분석

1 아동영향평가 조사 설계 및 설문지 구성

1) 아동영향평가 조사 개요

- 수원시의 아동영향평가는 유니세프의 아동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매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의 대상자는 초등학생 300명, 중학생 300명, 고등학생 300명, 학교 밖 아동 100명,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명으로 선정하였다.
- 초·중·고등학교 선정은 수원시 내 학생 수를 고려하여 총 34개 학교를 무작위(Random)로 추출하였으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수원시 내 10개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각각 추출하였다. 학교 밖 아동은 수원시청소년재단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 초등학생: 수원시 내 12개 초등학교의 학생(4~6학년)
 - 중·고등학생: 수원시 내 22개의 중·고등학교의 학생(1~3학년)
 - 학교 밖 아동²⁾: 수원시 내 학교 밖 아동 지원 기관의 학교 밖 아동
 - 미취학 아동 보호자: 미취학 자녀를 둔 보호자
-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조사는 2020년 7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아동, 미취학 아동 보호자를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에 의해 컴퓨터를 활용한 웹조사(computer aided web interview)로 수행하였다.

2) 아동영향평가 설문지 구성

- 설문지 구성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따른 지자체의 아동정책, 행정체계 변화가 아동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개발되었다([표 3] 참조).

2 학교 밖 아동의 범위: 만 19세 미만 학령기 아동 중 미취학, 미진학, 학업중단의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표 3] 아동영향평가 설문지 구성

질문 영역	설문 문항 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	미취학 아동 보호자
지역사회에서 존중	5	5	5	5	5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참여	5	5	5	5	7
지역사회에서 건강과 교육 보장	5	5	5	5	6
지역사회에서 안전과 보호	5	5	5	5	6
지역사회에서 여가와 가정생활 보장	5	5	5	5	4

2 아동영향평가 분석 결과

1) 응답자 특성

○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조사 설문 응답자 특성은 [표 4]와 같다

- 전체 응답자의 수는 1,096명으로 초등학생 296명(27.0%), 중학생 314명(28.6%), 고등학생 292명(26.6%), 학교 밖 아동 94명(8.6%),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명(9.1%)으로 구성되었다.

○ 응답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장안구 22.3%(224명), 권선구 26.6%(291명), 팔달구 13.1%(144명), 영통구 38.0%(417명)로 나타났다.

[표 4] 아동영향평가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96	100
응답자	초등학생	296	27.0
	중학생	314	28.6
	고등학생	292	26.6
	학교 밖 아동	94	8.6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9.1
학교 소재지/거주지	장안구	244	22.3
	권선구	291	26.6
	팔달구	144	13.1
	영통구	417	38.0

구분		사례수(명)	비율(%)
성별	(아동) 남학생	497	45.3
	(아동) 여학생	499	45.5
	(보호자) 남성	41	3.7
	(보호자) 여성	59	5.4

2) 지역사회에서 존중

- ‘지역사회에서 존중’은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아동의 배려 여부, 행사에 다양한 집단의 참여 여부, 장애아동도 맘껏 놀 수 있는 놀이터 유무, 지역의 시설이나 환경이 장애아동도 이용 편리 여부, 다양한 집단을 위한 정책이나 계획 유무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 응답자별 설문 문항의 수는 모두 각각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표 5]와 같다.

[표 5] ‘지역사회에서 존중’ 설문 문항 및 문항 수

변수명	설문 문항				
A1_1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모든 아동이 배려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A1_2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에 다양한 집단(예: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신체적·정신적 장애아동, 장애부모를 둔 아동)도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A1_3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장애아동도 맘껏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A1_4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설이나 환경(화장실, 도로, 계단 등)이 장애아동도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나요?				
A1_5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다양한 집단(예: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신체적·정신적 장애아동, 장애 부모를 둔 아동)을 위한 정책이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	미취학 아동 보호자
문항 수	5	5	5	5	5

A1_1.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모든 아동이 배려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표 6]의 응답별 결과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7.4%로 가장 높았다.
 - 응답자별로는 ‘그렇다’의 응답은 미취학 아동 보호자(59.0%)가 높았고, 학교 밖 아동(35.1%)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학교 소재시/거주지별로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49.2%), 장안구(48.0%), 권선구(47.8%), 팔달구(41.0%)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지역에서 모든 아동이 배려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응답자별로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영통구가 긍정적 인식(매우 그렇다+그렇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학교 밖 아동의 경우 ‘모르겠다’의 응답이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수원시가 학교 밖 아동에 대한 배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모든 아동이 배려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96	26	2.4	91	8.3	520	47.4	242	22.1	217	19.8	
응답자	초등학생	296	4	1.4	15	5.1	121	40.9	97	32.8	59	19.9
	중학생	314	3	1.0	15	4.8	169	53.8	70	22.3	57	18.2
	고등학생	292	12	4.1	38	13.0	138	47.3	54	18.5	50	17.1
	학교 밖 아동	94	5	5.3	10	10.6	33	35.1	11	11.7	35	37.2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2	2.0	13	13.0	59	59.0	10	10.0	16	16.0
학교 소재지/거주지	장안구	244	1	0.4	20	8.2	117	48.0	61	25.0	45	18.4
	권선구	291	6	2.1	19	6.5	139	47.8	78	26.8	49	16.8
	팔달구	144	7	4.9	12	8.3	59	41.0	64	23.6	32	22.2
	영통구	417	12	2.9	40	9.6	205	49.2	69	16.5	91	21.8

A1_2.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에 다양한 집단(예: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신체적·정신적 장애아동, 장애부모를 둔 아동)도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표 7]의 응답별 결과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37.6%로 가장 높았다.

- 응답자별로는 ‘그렇다’의 응답은 중학생(43.6%)이 가장 높았고, 학교 밖 아동(28.7%)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42.4%), 장안구(41.8%), 권선구(36.1%), 영통구(34.5%)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지역의 아동이 지역행사에 대한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별로는 중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학교 밖 아동의 경우 ‘모르겠다’의 응답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지역행사 홍보의 효과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7]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에 다양한 집단(예: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신체적·정신적 장애아동, 장애부모를 둔 아동)도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96	34	3.1	115	10.5	412	37.6	221	20.2	314	28.6	
응답자	초등학생	296	3	1.0	17	5.7	92	31.1	87	29.4	97	32.8
	중학생	314	8	2.5	17	5.4	137	43.6	72	22.9	580	25.5
	고등학생	292	13	4.5	39	13.4	120	41.1	45	15.4	75	25.7
	학교 밖 아동	94	7	7.4	11	11.7	27	28.7	8	8.5	41	43.6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3	3.0	31	31.0	36	36.0	9	9.0	21	21.0
학교 소재지/거주지	장안구	244	3	1.2	28	11.5	102	41.8	57	23.4	54	22.1
	권선구	291	9	3.1	26	8.9	105	36.1	63	21.6	88	30.2
	팔달구	144	2	1.4	8	5.6	61	42.4	34	23.6	39	27.1
	영통구	417	20	4.8	53	12.7	144	34.5	67	16.1	133	31.9

A1_3.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장애아동도 맘껏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 [표 8]의 응답별 결과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30.8%로 가장 높았다.

- 응답자별로는 ‘그렇다’의 응답은 중학생(36.0%)이 가장 높았고, 학교 밖 아동(20.0%)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권선구(33.7%), 장안구(30.0%), 팔달구(29.9%), 영통구(29.5%)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지역에서 장애아동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응답자별로는 중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미취학 아동 보호자의 부정적(전혀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응답률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정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표 8]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장애아동도 맘껏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96	70	6.4	194	17.7	338	30.8	253	23.1	241	22.0	
응답자	초등학생	296	134	4.4	45	15.2	68	23.0	99	33.4	71	24.0
	중학생	314	6	1.9	47	15.0	113	36.0	80	25.5	68	21.7
	고등학생	292	30	10.3	49	16.8	104	35.6	55	18.8	54	18.5
	학교 밖 아동	94	10	10.6	22	23.4	19	20.2	11	11.7	32	34.0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1	11.0	31	31.0	34	34.0	8	8.0	16	16.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244	13	5.3	44	18.0	74	30.3	64	26.2	49	20.1
	권선구	291	16	5.5	47	16.2	98	33.7	68	23.4	62	21.3
	팔달구	144	8	5.6	17	11.8	43	29.9	44	30.6	32	22.2
	영통구	417	33	7.9	86	20.6	123	29.5	77	18.5	98	23.5

A1_4.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설이나 환경(화장실, 도로, 계단 등)이 장애아동도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나요?

○ [표 9]의 응답별 결과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38.2%로 가장 높았다.

- 응답자별로는 ‘그렇다’의 응답은 중학생(36.0%)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30.4%)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권선구(41.6%), 영통구(39.1%), 팔달구(36.8%), 장안구(33.6%)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지역의 시설 및 환경이 장애아동도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응답자별로는 중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권선구가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미취학 아동 보호자의 부정적 응답률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정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표 9]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설이나 환경(화장실, 도로, 계단 등)이 장애아동도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96	55	5.0	180	16.4	419	38.2	240	21.9	202	18.4	
응답자	초등학생	296	12	4.1	33	11.1	90	30.4	100	33.8	61	20.6
	중학생	314	8	2.5	39	12.4	135	43.0	71	22.6	61	19.4
	고등학생	292	19	6.5	52	17.8	123	42.1	53	18.2	45	15.4
	학교 밖 아동	94	5	5.3	23	24.5	33	35.1	12	12.8	21	22.3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1	11.0	33	33.0	38	38.0	4	4.0	14	14.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244	11	4.5	45	18.4	82	33.6	66	27.0	40	16.4
	권선구	291	13	4.5	36	12.4	121	41.6	66	22.7	55	18.9
	팔당구	144	7	4.9	14	9.7	53	36.8	34	23.6	36	25.0
	영통구	417	24	5.8	85	20.4	163	39.1	74	17.7	71	17.0

A1_5.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다양한 집단(예: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신체적·정신적 장애아동, 장애부모를 둔 아동)을 위한 정책이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 [표 10]의 응답별 결과는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평균 35.9%로 가장 높았다.

- 응답자별로는 ‘모르겠다’의 응답은 학교 밖 아동(59.6%)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26.7%)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37.4%), 권선구(36.1%), 장안구(34.8%), 팔당구(32.6%)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지역 정책 및 계획이 지역의 다양한 집단을 위하여 설계된 것이라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학교 밖 아동의 응답률을 제외하면 긍정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학교 밖 아동이 질문에서 정의하는 다양한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해당질문의 긍정적 응답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표 10]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다양한 집단(예: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신체적·정신적 장애아동, 장애부모를 둔 아동)을 위한 정책이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96	32	2.9	92	8.4	386	35.2	193	17.6	393	35.9	
응답자	초등학생	296	6	2.0	20	6.8	75	25.3	68	23.0	127	42.9
	중학생	314	4	1.3	15	4.8	124	39.5	66	21.0	105	33.4
	고등학생	292	12	4.1	27	9.2	129	44.2	46	15.8	78	26.7
	학교 밖 아동	94	4	4.3	9	9.6	17	18.1	8	8.5	56	59.6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6	6.0	21	21.0	41	41.0	5	5.0	27	27.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244	3	1.2	22	9.0	84	34.4	50	20.5	85	34.8
	권선구	291	8	2.7	17	5.8	111	38.1	50	17.2	105	36.1
	팔달구	144	6	4.2	10	6.9	50	34.7	31	21.5	47	32.6
	영통구	417	15	3.6	43	10.3	141	33.8	62	14.9	156	37.4

2)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참여

-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참여’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의 의견을 묻는 회의나 활동 여부, 아동의 제안 의견 반영 여부, 아동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 여부, 회의나 활동 참여의 만족여부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 응답자별 설문 문항의 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 각각 5개 문항, 미취학 아동 보호자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표 11]과 같다.

[표 11] ‘지역사회 의사결정 참여’의 설문 문항 및 문항 수

변수명	설문 문항				
A2_1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아동의 의견을 묻는 회의나 활동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A2_2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모든 아동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나요?				
A2_3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동이 제안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A2_4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은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고 싶다고 생각하나요?				
A2_5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은 아동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나요?				
A2_6	여러분은 지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시민으로서 의지와 역량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A2_7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열린 회의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A2_8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회의나 활동에 참여했을 때 만족하셨습니까?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	미취학아동 보호자
문항 수	5	5	5	5	7

A2_1.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아동의 의견을 묻는 회의나 활동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 [표 12]의 응답별 결과는 ‘모르겠다’의 응답률이 평균 36.5%로 가장 높았다.

- 응답자별로는 ‘모르겠다’의 응답은 초등학생(44.6%)이 가장 높았고, 미취학 아동 보호자(17.0%)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모르겠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43.1%), 권선구(36.8%), 장안구(36.5%), 영통구(34.1%)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공교육 제도권 밖에 있는 학교 밖 아동을 제외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긍정적 응답률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낮은 연령대 학생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 반면, 높은 연령대에 속하는 학교 밖 아동의 부정적 응답률이 38.3%로 나타난 점을 고려해 볼 때,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의견청취 및 수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2]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아동의 의견을 묻는 회의나 활동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96	83	7.6	178	16.2	301	27.5	134	12.2	400	36.5	
응답자	초등학생	296	19	6.4	28	9.5	74	25.0	43	14.5	132	44.6
	중학생	314	19	6.1	35	1.1	101	32.2	42	13.4	117	37.3
	고등학생	292	27	9.2	55	18.8	76	26.0	37	12.7	97	33.2
	학교 밖 아동	94	13	13.8	23	24.5	16	17.0	5	5.3	37	39.4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5	5.0	37	37.0	34	34.0	7	7.0	17	17.0
학교 소재지/거주지	장안구	244	15	6.1	31	12.7	73	29.9	36	14.8	89	36.5
	권선구	291	14	4.8	47	16.2	82	28.2	41	14.1	107	36.8
	팔달구	144	7	4.9	17	11.8	37	25.7	21	14.6	62	43.1
	영통구	417	47	11.3	83	19.9	109	26.1	36	8.6	142	34.1

A2_2.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모든 아동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나요?

○ [표 13]의 응답별 결과는 ‘모르겠다’의 응답률이 평균 32.0%로 가장 높았다.

- 응답자별로는 ‘모르겠다’의 응답은 초등학생(38.5%)이 가장 높았고, 미취학 아동 보호자(20.0%)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학교 소재시/거주지별로는 ‘모르겠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33.3%), 권선구(32.3%), 장안구(32.0%), 영통구(31.4%)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지역에 모든 아동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특히 미취학 아동 보호자와 학교 밖 아동의 부정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13]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모든 아동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96	72	6.6	186	17.0	349	31.8	138	12.6	351	32.0	
응답자	초등학생	296	15	5.1	30	10.1	87	29.4	50	16.9	114	38.5
	중학생	314	16	5.1	40	12.7	108	34.4	49	15.6	101	32.2
	고등학생	292	21	7.2	57	19.5	96	32.9	32	11.0	86	29.5
	학교 밖 아동	94	14	14.9	24	25.5	23	24.5	3	3.2	30	31.9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6	6.0	35	35.0	35	35.0	4	4.0	20	20.0
학교 소재시/거주지	장안구	244	9	3.7	35	14.3	86	35.2	36	14.8	78	32.0
	권선구	291	12	4.1	45	15.5	100	34.4	40	13.7	94	32.3
	팔달구	144	7	4.9	17	11.8	51	35.4	21	14.6	48	33.3
	영통구	417	44	10.6	89	21.3	112	26.9	41	9.8	131	31.4

A2_3.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동이 제안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표 14]의 응답별 결과는 ‘모르겠다’의 응답률이 평균 34.5%로 가장 높았다.
- 응답자별로는 ‘모르겠다’의 응답은 학교 밖 아동(42.6%)이 가장 높았고, 미취학 아동 보호자(22.0%)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학교 소재시/거주지별로는 ‘모르겠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40.3%), 권선구(34.4%), 영통구(33.3%), 장안구(33.2%)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지역이 아동이 제안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정적 응답률이 높아졌다. 이는 주민들이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여도, 개진한 의견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군구별 사회조사 결과에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시정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해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표 14]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동이 제안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96	75	6.8	176	16.1	329	30.0	138	12.6	378	34.5	
응답자	초등학생	296	10	3.4	36	12.2	87	29.4	53	17.9	110	37.2
	중학생	314	14	4.5	37	11.8	101	32.2	46	14.6	116	36.9
	고등학생	292	32	11.0	47	16.1	94	32.2	29	9.9	90	30.8
	학교 밖 아동	94	12	12.8	22	23.4	15	16.0	5	5.3	40	42.6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7	7.0	34	34.0	32	32.0	5	5.0	22	22.0
학교 소재지/거주지	장안구	244	10	4.1	39	16.0	82	33.6	32	13.1	81	33.2
	권선구	291	14	4.8	38	13.1	95	32.6	44	15.1	100	34.4
	팔달구	144	9	6.3	15	10.4	41	28.5	21	14.6	58	40.3
	영통구	417	42	10.1	84	20.1	111	26.6	41	9.8	139	33.3

A2_4.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은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고 싶다고 생각하나요?

○ [표 15]의 응답별 결과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0.3%로 가장 높았다.

- 응답자별로는 ‘그렇다’의 응답은 고등학생(43.5%)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35.5%)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장안구(45.3%), 팔달구(41.8%), 영통구(39.6%), 권선구(35.9%)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아동의 관심 및 의견제재 활동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응답자별로는 고등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2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견의 피드백 체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5]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은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고 싶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996	50	5.0	119	11.9	401	40.3	193	19.4	233	23.4	
응답자	초등학생	296	17	5.7	28	9.5	105	35.5	68	23.0	78	26.4
	중학생	314	12	3.8	41	13.1	130	41.4	61	19.4	70	22.3
	고등학생	292	16	5.5	40	13.7	127	43.5	50	17.1	59	20.2
	학교 밖 아동	94	5	5.3	10	10.6	39	41.5	14	14.9	26	27.7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
학교 소재지/거주지	장안구	225	8	3.6	24	10.7	102	45.3	41	18.2	50	22.2
	권선구	256	10	3.9	29	11.3	92	35.9	60	23.4	65	25.4
	팔달구	134	4	3.0	10	7.5	56	41.8	30	22.4	34	25.4
	영통구	381	28	7.3	56	14.7	151	39.6	62	16.3	84	22.0

A2_5.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은 아동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나요?

○ [표 16]의 응답별 결과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2.2%로 가장 높았다.

- 응답자별로는 ‘그렇다’의 응답은 중학생(48.1%)이 가장 높았고, 학교 밖 아동(31.9%)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장안구(43.4%), 영통구(42.7%), 팔달구(41.0%), 권선구(40.9%)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지역이 아동을 지역사회 의사결정자로서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응답자별로는 중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미취학 아동 보호자의 부정적 응답률(38.0%)이 학생들의 부정적 응답률의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성인입장에서는 지역사회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은 아동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96	36	3.3	106	9.7	462	42.2	199	18.2	293	26.7	
응답자	초등학생	296	6	2.0	17	5.7	110	37.2	80	27.0	83	28.0
	중학생	314	6	1.9	15	4.8	151	48.1	60	19.1	82	26.1
	고등학생	292	12	4.1	33	11.3	137	46.9	43	14.7	67	22.9
	학교 밖 아동	94	5	5.3	10	10.6	30	31.9	8	8.5	41	43.6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7	7.0	31	31.0	34	34.0	8	8.0	20	20.0
학교 소재지/거주지	장안구	244	6	2.5	23	9.4	106	43.4	49	20.1	60	24.6
	권선구	291	7	2.4	26	8.9	119	40.9	57	19.6	82	28.2
	팔달구	144	4	2.8	8	5.6	59	41.0	35	24.3	38	26.4
	영통구	417	19	4.6	49	11.8	178	42.7	58	13.9	113	27.1

A2_6. 여러분은 지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시민으로서 의지와 역량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표 17]의 질문은 미취학 아동 보호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결과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35.0%로 가장 높았다.
 -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도 31.0%로 나타나, 부정적 응답률도 높게 나타났다.
 -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권선구(51.4%), 팔달구(50.0%), 장안구(31.6%), 영통구(16.7%)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지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시민으로서 의지와 역량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학교 소재지/거주지별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지역별 시민참여 관련 프로그램이 단순참여에 그치고 있으며, 질적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7] 여러분은 지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시민으로서 의지와 역량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0	5	5.0	31	31.0	35	35.0	7	7.0	22	22.0	
응답자	초등학생	-	-	-	-	-	-	-	-	-	-	
	중학생	-	-	-	-	-	-	-	-	-	-	
	고등학생	-	-	-	-	-	-	-	-	-	-	
	학교 밖 아동	-	-	-	-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5	5.0	31	31.0	35	35.0	7	7.0	22	22.0
학교 소재지/거주지	장안구	19	1	5.3	8	42.1	6	31.6	0	0.0	4	21.1
	권선구	35	1	2.9	7	20.0	18	51.4	3	8.6	6	17.1
	팔달구	10	0	0.0	2	20.0	5	50.0	2	20.0	1	10.0
	영통구	36	3	8.3	14	38.9	6	16.7	2	5.6	11	30.6

A2_7.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열린 회의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 [표 18]의 질문은 미취학 아동 보호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 결과는 ‘없다’는 응답률이 91.0%로 가장 높았으며, 참여경험 응답률은 9.0%에 불과하였다.

-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의 참여경험 응답률이 30.0%로 가장 높았으며, 장안구가 0.0%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 전반적으로 지역에서 열린 회의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수원시의 홍보 부족의 문제와 더불어 맞벌이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언택트) 매체를 활용한 회의참여 유인책을 마련해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8]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열린 회의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구분	전체 응답 (명)	있음		없음		
		명	%	명	%	
전체	100	9	9.0	91	91.0	
응답자	초등학생	-	-	-	-	
	중학생	-	-	-	-	
	고등학생	-	-	-	-	
	학교 밖 아동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9	9.0	91	91.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19	0	0.0	19	100.0
	권선구	35	4	11.4	31	88.6
	팔달구	10	3	30.0	7	70.0
	영통구	36	2	5.6	34	94.4

A2_8.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회의나 활동에 참여했을 때 만족하셨습니다가?

- [표 19]의 미취학 아동 보호자의 응답 결과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88.9%로 가장 높았다.
 -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100.0%), 영통구(100.0%), 권선구(75.0%)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지역에서 열린 회의나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추후 참여 인원을 확대하여 지역회의 및 활동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 19]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회의나 활동에 참여했을 때 만족하십니까?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명	%	명	%	명	%	명	%	
전체	9	0	0.0	1	11.1	8	88.9	0	0.0	
응답자	초등학생	-	-	-	-	-	-	-	-	
	중학생	-	-	-	-	-	-	-	-	
	고등학생	-	-	-	-	-	-	-	-	
	학교 밖 아동	-	-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9	0	0.0	1	11.1	8	88.9	0	0.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	-	-	-	-	-	-	-	
	권선구	4	0	0.0	1	25.0	3	75.0	0	0.0
	팔달구	3	0	0.0	0	0.0	3	100.0	0	0.0
	영통구	2	0	0.0	0	0.0	2	100.0	0	0.0

3) 지역사회에서 건강과 교육 보장

- ‘지역사회에서 건강과 교육 보장’은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의 의료서비스가 아동의 요구 반영 및 이용 편하게 제공 여부,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여부,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이 아동의 요구와 흥미 반영 여부, 학교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 이용 편리 여부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 응답자별 설문 문항의 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 각각 5개 문항, 미취학 아동 보호자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표 20]과 같다.

[표 20] ‘지역사회에서 건강과 교육 보장’의 설문 문항 및 문항 수

변수명	설문 문항				
A3_1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의료서비스(건강검진, 예방접종 등)가 여러분의 요구를 반영해 이용하기 편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A3_2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은 영유아 자녀가 공평하게 의료서비스(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기회를 누리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3_3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A3_4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예: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 지역 청소년 센터 등)이 여러분의 요구와 흥미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A3_5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아동이 상담을 원할 때 언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A2_6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학교와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상담소 등)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	미취학 아동 보호자
문항 수	5	5	5	5	6

A3_1.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의료서비스(건강검진, 예방접종 등)가 여러분의 요구를 반영해 이용하기 편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표 21]의 응답별 결과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2.4%로 가장 높았다.
 - 응답자별로는 ‘그렇다’의 응답은 미취학 아동 보호자(53.0%)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35.1%)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43.9%), 장안구(42.6%), 권선구(42.3%), 팔달구(38.2%)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지역의 의료서비스(건강검진, 예방접종 등)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이용하기 편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응답자별로는 중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장안구가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은 가운데, 학교 밖 아동의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2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밖 아동을 위한 수원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1]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의료서비스(건강검진, 예방접종 등)가 여러분의 요구를 반영해 이용하기 편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96	12	1.1	31	2.8	465	42.4	430	39.2	158	14.4	
응답자	초등학생	296	2	0.7	7	2.4	104	35.1	142	48.0	41	13.9
	중학생	314	3	1.0	4	1.3	137	43.6	129	41.1	41	13.1
	고등학생	292	6	2.1	7	2.4	129	44.2	104	35.6	46	15.8
	학교 밖 아동	94	1	1.1	2	2.1	42	44.7	24	25.5	25	26.6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0	0.0	11	11.0	53	53.0	31	31.0	5	5.0
학교 소재지/거주지	장안구	244	1	0.4	4	1.6	104	42.6	102	41.8	33	13.5
	권선구	291	5	1.7	5	1.7	123	42.3	115	39.5	43	14.8
	팔달구	144	1	0.7	3	2.1	55	38.2	65	45.1	20	13.9
	영통구	417	5	1.2	4	1.6	183	43.9	148	35.5	62	14.9

A3_2.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은 영유아 자녀가 공평하게 의료서비스(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기회를 누리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 22]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 결과는 ‘그렇다’의 응답

률이 평균 54.0%로 가장 높았다.

- 부정적 응답률이 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수원시 의료서비스의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학교 소재시/거주지별로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70.0%), 장안구(63.2%), 권선구(62.9%), 영통구(36.1%)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지역의 의료서비스 여건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이 높게 도출되었으나, 영통구의 긍정적 응답률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았으며,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영통구의 의료서비스에 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22]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은 영유아 자녀가 공평하게 의료서비스(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기회를 누리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0	0	0.0	8	8.0	54	54.0	32	32.0	6	6.0	
응답자	초등학생	-	-	-	-	-	-	-	-	-	-	
	중학생	-	-	-	-	-	-	-	-	-	-	
	고등학생	-	-	-	-	-	-	-	-	-	-	
	학교 밖 아동	-	-	-	-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0	0.0	8	8.0	54	54.0	32	32.0	6	6.0
학교 소재시/거주지	장안구	19	0	0.0	0	0.0	12	63.2	7	36.8	0	0.0
	권선구	35	0	0.0	2	5.7	22	62.9	10	28.6	1	2.9
	팔달구	10	0	0.0	1	10.0	7	70.0	2	20.0	0	0.0
	영통구	36	5	13.9	5	13.9	13	36.1	13	36.1	5	13.9

A3_3.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표 23]의 응답별 결과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1.9%로 가장 높았다.

- 응답자별로는 ‘그렇다’의 응답은 미취학 아동 보호자(51.0%)가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33.1%)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학교 소재시/거주지별로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44.1%), 장안구(43.0%), 권선구(41.9%), 팔달구(33.3%)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지역의 교육·보육 기회의 형평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학교 밖 아동의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23.4%로 높게 조사되어, 학교 밖 아동관련 교육/보육 시스템에 대한 홍보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3]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96	19	1.7	48	4.4	459	41.9	402	36.7	168	15.3	
응답자	초등학생	296	4	1.4	4	1.4	98	33.1	141	47.6	49	16.6
	중학생	314	5	1.6	5	1.6	135	43.0	119	37.9	50	15.9
	고등학생	292	9	3.1	20	6.8	132	45.2	92	31.5	39	13.4
	학교 밖 아동	94	0	0.0	5	5.3	43	45.7	24	25.5	22	23.4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	1.0	14	14.0	51	51.0	26	26.0	8	8.0
학교 소재지/거주지	장안구	244	2	0.8	7	2.9	105	43.0	93	38.1	37	15.2
	권선구	291	5	1.7	8	2.7	122	41.9	112	38.5	44	15.1
	팔달구	144	2	1.4	3	2.1	48	33.3	61	42.4	30	20.8
	영통구	417	10	2.4	30	7.2	184	44.1	136	32.6	57	13.7

A3_4.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예: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 지역 청소년 센터 등)이 여러분의 요구와 흥미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표 24]의 응답별 결과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0.7%로 가장 높았다.

- 응답자별로는 ‘그렇다’의 응답은 미취학 아동 보호자(49.0%)가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32.4%)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장안구(43.0%), 영통구(40.8%), 권선구(40.5%), 팔달구(36.8%)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지역의 영유아 자녀 돌봄(긴급 보육, 방과 후 돌봄 등)서비스가 자녀의 요구와 흥미를 반영하여 제공되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응답자별로는 중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장안구가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학교 밖 아동의 경우 ‘모르겠다’의 응답이 42.6%로 매우 높게 나타나, 수원시의 영유아 자녀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학교 밖 아동의 요구반영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24]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예: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 지역 청소년 센터 등)이 여러분의 요구와 흥미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96	22	2.0	86	7.8	446	40.7	317	28.9	225	20.5	
응답자	초등학생	296	2	0.7	15	5.1	96	32.4	121	40.9	62	20.9
	중학생	314	5	1.6	14	4.5	141	44.9	95	30.3	59	18.8
	고등학생	292	11	3.8	30	10.3	125	42.8	75	25.7	51	17.5
	학교 밖 아동	94	1	1.1	6	6.4	35	37.2	12	12.8	40	42.6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3	3.0	21	21.0	49	49.0	14	14.0	13	13.0
학교 소재지/거주지	장안구	244	3	1.2	11	4.5	105	43.0	83	34.0	42	17.2
	권선구	291	5	1.7	20	6.9	118	40.5	87	29.9	61	21.0
	팔달구	144	5	3.5	9	6.3	53	36.8	51	35.4	26	18.1
	영통구	417	9	2.2	46	11.0	170	40.8	96	23.0	96	23.0

A3_5.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아동이 상담을 원할 때 언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 [표 25]의 응답별 결과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39.1%로 가장 높았다.

- 응답자별로는 ‘그렇다’의 응답은 미취학 아동 보호자(56.0%)가 가장 높았고, 학교 밖 아동(19.1%)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장안구(45.1%), 영통구(39.3%), 권선구(37.1%), 팔달구(31.9%)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지역에 영유아 자녀의 발달과 육아를 위한 상담 및 보건 의료 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응답자별로는 중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장안구가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학교 밖 아동의 경우 ‘모르겠다’의 응답이 42.6%로 매우 높게 나타나, 수원시의 영유아 자녀의 발달과 육아를 위한 상담 및 보건 의료 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표 25]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아동이 상담을 원할 때 언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96	27	2.5	83	7.6	428	39.1	314	28.6	244	22.3	
응답자	초등학생	296	4	1.4	22	7.4	90	30.4	108	36.5	72	24.3
	중학생	314	3	1.0	11	3.5	143	45.5	98	31.2	59	18.8
	고등학생	292	8	2.7	23	7.9	121	41.4	79	27.1	61	20.9
	학교 밖 아동	94	8	8.5	12	12.8	18	19.1	16	17.0	40	42.6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4	4.0	15	15.0	56	56.0	13	13.0	12	12.0
학교 소재지/거주지	장안구	244	2	0.8	16	6.6	110	45.1	72	29.5	44	18.0
	권선구	291	8	2.7	16	5.5	108	37.1	92	31.6	67	23.0
	팔달구	144	3	2.1	6	4.2	46	31.9	56	38.9	33	22.9
	영통구	417	14	3.4	45	10.8	164	39.3	94	22.5	100	24.0

A3_6.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학교와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상담소 등)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생각하나요?

○ [표 26]의 응답별 결과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2.4%로 가장 높았다.

- 응답자별로는 ‘그렇다’의 응답은 미취학 아동 보호자(50.0%)가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33.1%)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장안구(44.7%), 영통구(43.6%), 권선구(40.2%), 팔달구(39.6%)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지역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상담소 등)의 연계와 협력이 잘 이루어져 영유아가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응답자별로는 중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장안구가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학교 밖 아동의 경우 ‘모르겠다’의 응답이 30.9%로 높게 나타나, 학교 밖 아동에 대한 교육 및 의료기관 연계서비스의 홍보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표 26]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학교와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상담소 등)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96	12	1.1	52	4.7	465	42.4	366	33.4	201	18.3	
응답자	초등학생	296	2	0.7	6	2.0	98	33.1	133	44.9	57	19.3
	중학생	314	3	1.0	4	1.3	148	47.1	104	33.1	55	17.5
	고등학생	292	6	2.1	15	5.1	136	46.6	89	30.5	46	15.8
	학교 밖 아동	94	1	1.1	8	8.5	33	35.1	23	24.5	29	30.9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0	0.0	19	19.0	50	50.0	17	17.0	14	14.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244	1	0.4	9	3.7	109	44.7	89	36.5	36	14.8
	권선구	291	4	1.4	10	3.4	117	40.2	105	36.1	55	18.9
	팔달구	144	1	0.7	4	2.8	57	39.6	52	36.1	30	20.8
	영통구	417	6	1.4	29	7.0	182	43.6	120	28.8	80	19.2

4) 지역사회에서 안전과 보호

- ‘지역사회에서 안전과 보호’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여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제공 여부, 아동에게 깨끗한 환경 제공 여부, 지역 개발이나 주거지 계획 시 아동 고려 여부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 응답자별 설문 문항의 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 각각 5개 문항, 미취학 아동 보호자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표 27]과 같다.

[표 27] ‘지역사회에서 안전과 보호’의 설문 문항 및 문항 수

변수명	설문 문항				
A4_1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A4_2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동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A4_3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동이 학대나 폭력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절차와 지원시스템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A4_4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동이 깨끗한 환경(공기, 먹는 물, 화장실 등)에서 자라도록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A4_5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지역 개발이나 주거지 계획을 할 때 아동을 고려한다고 생각하나요?				
A4_6	여러분의 가정이 영유아 자녀가 생활하기에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	미취학 아동 보호자
문항 수	5	5	5	5	6

A4_1.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 [표 28]의 응답별 결과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6.4%로 가장 높았다.

- 응답자별로는 ‘그렇다’의 응답은 미취학 아동 보호자(62.0%)가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37.8%)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48.2%), 장안구(47.1%), 권선구(46.4%), 팔달구(40.3%)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지역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응답자별로는 초등학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장안구가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96	18	1.6	78	7.1	509	46.4	410	37.4	81	7.4	
응답자	초등학생	296	2	0.7	22	7.4	112	37.8	147	49.7	13	4.4
	중학생	314	2	0.6	13	4.1	150	47.8	119	37.9	30	9.6
	고등학생	292	9	3.1	19	6.5	143	49.0	100	34.2	21	7.2
	학교 밖 아동	94	3	3.2	8	8.5	42	44.7	30	31.9	11	11.7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2	2.0	16	16.0	62	62.0	14	14.0	6	6.0
학교 소재지/거주지	장안구	244	2	0.8	14	5.7	115	47.1	94	38.5	19	7.8
	권선구	291	5	1.7	20	6.9	135	46.4	112	38.5	19	6.5
	팔달구	144	4	2.8	7	4.9	58	40.3	61	42.4	14	9.7
	영통구	417	7	1.7	37	8.9	201	48.2	143	34.3	29	7.0

A4_2.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동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표 29]의 응답별 결과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3.1%로 가장 높았다.

- 응답자별로는 ‘그렇다’의 응답은 미취학 아동 보호자(59.0%)가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33.1%)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47.2%), 권선구(42.6%), 장안구(41.0%), 팔달구(35.4%)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지역이 아동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응답자별로는 초등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권선구가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동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96	17	1.6	75	6.8	472	43.1	391	35.7	141	12.9	
응답자	초등학생	296	3	1.0	10	3.4	98	33.1	145	49.0	40	13.5
	중학생	314	4	1.3	15	4.8	146	46.5	111	35.4	38	12.1
	고등학생	292	6	2.1	26	8.9	125	42.8	99	33.9	36	12.3
	학교 밖 아동	94	1	1.1	10	10.6	44	46.8	25	26.6	14	14.9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3	3.0	14	14.0	59	59.0	11	11.0	13	13.0
학교 소재지/거주지	장안구	244	5	2.0	16	6.6	100	41.0	92	37.7	31	12.7
	권선구	291	5	1.7	15	5.2	124	42.6	115	39.5	32	11.0
	팔달구	144	1	0.7	11	7.6	51	35.4	56	38.9	25	17.4
	영통구	417	6	1.4	33	7.9	197	47.2	128	30.7	53	12.7

A4_3.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동이 학대나 폭력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절차와 지원시스템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표 30]의 응답별 결과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2.4%로 가장 높았다.
 - 응답자별로는 ‘그렇다’의 응답은 중학생(47.8%)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33.4%)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46.8%), 장안구(44.7%), 권선구(38.5%), 팔달구(34.0%)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지역이 아동이 학대나 폭력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응답자별로는 중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장안구가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학교 밖 아동의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34.0%로 높게 나타나, 학교 밖 아동의 아동 폭력 및 학대 관련 지원기관에 대한 홍보 및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0]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동이 학대나 폭력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절차와 지원시스템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96	18	1.6	52	4.7	465	42.4	342	31.2	219	20.0	
응답자	초등학생	296	5	1.7	10	3.4	99	33.4	130	43.9	52	17.6
	중학생	314	2	0.6	7	2.2	150	47.8	98	31.2	57	18.2
	고등학생	292	5	1.7	14	4.8	127	43.5	90	30.8	56	19.2
	학교 밖 아동	94	1	1.1	5	5.3	43	45.7	13	13.8	32	34.0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5	5.0	16	16.0	46	46.0	11	11.0	22	22.0
학교 소재지/거주지	장안구	244	3	1.2	13	5.3	109	44.7	76	31.1	43	17.6
	권선구	291	7	2.4	12	4.1	112	38.5	104	35.7	56	19.2
	팔달구	144	1	0.7	2	1.4	49	34.0	58	40.3	34	23.6
	영통구	417	7	1.7	25	6.0	195	46.8	104	24.9	86	20.6

A4_4.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동이 깨끗한 환경(공기, 먹는 물, 화장실 등)에서 자라도록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표 31]의 응답별 결과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3.7%로 가장 높았다.

- 응답자별로는 ‘그렇다’의 응답은 미취학 아동 보호자(61.0%)가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33.1%)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49.4%), 장안구(43.9%), 권선구(41.9%), 팔달구(30.6%)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지역이 아동이 학대나 폭력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응답자별로는 초등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장안구가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동이 깨끗한 환경(공기, 먹는 물, 화장실 등)에서 자라도록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96	16	1.5	45	4.1	479	43.7	439	40.1	117	10.7	
응답자	초등학생	296	3	1.0	7	2.4	98	33.1	166	56.1	22	7.4
	중학생	314	5	1.6	6	1.9	140	44.6	124	39.5	39	12.4
	고등학생	292	4	1.4	10	3.4	130	44.5	113	38.7	35	12.0
	학교 밖 아동	94	1	1.1	4	4.3	50	53.2	26	27.7	13	13.8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3	3.0	18	18.0	61	61.0	10	10.0	8	8.0
학교 소재지/거주지	장안구	244	2	0.8	7	2.9	107	43.9	100	41.0	28	11.5
	권선구	291	5	1.7	10	3.4	122	41.9	123	42.3	31	10.7
	팔달구	144	0	0.0	6	4.2	44	30.6	74	51.4	20	13.9
	영통구	417	9	2.2	22	5.3	206	49.4	142	34.1	38	9.1

A4_5.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지역 개발이나 주거지 계획을 할 때 아동을 고려한다고 생각하나요?

- [표 32]의 응답별 결과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33.5%로 가장 높았다.
 - 응답자별로는 ‘그렇다’의 응답은 미취학 아동 보호자(44.0%)가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25.7%)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권선구(39.2%), 장안구(33.6%), 영통구(33.3%), 팔달구(22.2%)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지역이 지역 개발이나 주거지 계획을 할 때 아동을 고려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응답자별로는 고등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권선구가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교 밖 아동의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41.5%로 높게 도출되었다.

[표 32]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지역 개발이나 주거지 계획을 할 때 아동을 고려한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96	38	3.5	95	8.7	367	33.5	288	26.3	308	28.1	
응답자	초등학생	296	8	2.7	20	6.8	76	25.7	99	33.4	93	31.4
	중학생	314	9	2.9	20	6.4	107	34.1	90	28.7	88	28.0
	고등학생	292	10	3.4	19	6.5	113	38.7	80	27.4	70	24.0
	학교 밖 아동	94	8	8.5	11	11.7	27	28.7	9	9.6	39	41.5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3	3.0	25	25.0	44	44.0	10	10.0	18	18.0
학교 소재지/거주지	장안구	244	9	3.7	16	6.6	82	33.6	69	28.3	68	27.9
	권선구	291	7	2.4	23	7.9	114	39.2	77	26.5	70	24.1
	팔달구	144	3	2.1	9	6.3	32	22.2	50	34.7	50	34.7
	영통구	417	19	4.6	47	11.3	139	33.3	92	22.1	120	28.8

A4_6. 여러분의 가정이 영유아 자녀가 생활하기에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표 33]의 문항은 미취학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 결과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59.0%로 가장 높았다.
 -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장안구(78.9%), 권선구(57.1%), 영통구(55.6%), 팔달구(40.0%)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지역이 가정이 영유아 자녀가 생활하기에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장안구가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가정이 영유아 자녀가 생활하기에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0	1	1.0	6	6.0	59	59.0	29	29.0	5	5.0	
응답자	초등학생	-	-	-	-	-	-	-	-	-	-	
	중학생	-	-	-	-	-	-	-	-	-	-	
	고등학생	-	-	-	-	-	-	-	-	-	-	
	학교 밖 아동	-	-	-	-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	1.0	6	6.0	59	59.0	29	29.0	5	5.0
학교 소재지/거주지	장안구	19	0	0.0	0	0.0	15	78.9	3	15.8	1	5.3
	권선구	35	0	0.0	2	5.7	20	57.1	11	31.4	2	5.7
	팔달구	10	0	0.0	0	0.0	4	40.0	5	50.0	1	10.0
	영통구	36	1	2.8	4	11.1	20	55.6	10	27.8	1	2.8

5) 지역사회에서 여가와 가정생활 보장

- ‘지역사회에서 여가와 가정생활 보장’은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포츠시설이나 놀이시설 만족 여부, 가정에서 심리적으로 안전 여부,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의 만족 여부, 아동 중심의 문화활동이나 취미활동 시행 여부, 영유아가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무료시설의 충분 여부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 응답자별 설문 문항의 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 각각 5개 문항, 미취학 아동 보호자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표 34]와 같다.

[표 34] ‘지역사회에서 여가와 가정생활 보장’의 설문 문항 및 문항 수

변수명	설문 문항				
A5_1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스포츠시설이나 놀이시설에 만족하나요?				
A5_2	여러분은 가정에서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나요?				
A5_3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에 대해 만족하나요?				
A5_4	여러분은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A5_5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아동 중심의 문화활동이나 취미활동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A5_6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영유아가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무료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5_7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영유아 중심의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5_8	여러분은 현재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일과 양육 간에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5_9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영유아 자녀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예: 접근성, 운영시간, 비용 등)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	미취학 아동 보호자
문항 수	5	5	5	5	4

A5_1.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스포츠시설이나 놀이시설에 대해 만족하나요?

- [표 35]의 응답별 결과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0.7%로 가장 높았다.
 - 응답자별로는 ‘그렇다’의 중학생(43.6%)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34.3%)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43.0%), 장안구(40.4%), 권선구(39.8%), 팔달구(35.8%)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지역의 스포츠시설이나 놀이시설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으며, 응답자별로는 초등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장안구가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스포츠시설이나 놀이시설에 대해 만족하나요?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996	41	4.1	111	11.1	405	40.7	361	36.2	78	7.8	
응답자	초등학생	296	9	3.0	29	9.8	103	34.8	140	47.3	15	5.1
	중학생	314	5	1.6	38	12.1	137	43.6	105	33.4	29	9.2
	고등학생	292	16	5.5	29	9.9	126	43.2	96	32.9	25	8.6
	학교 밖 아동	94	11	11.7	15	16.0	39	41.5	20	21.3	9	9.6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
학교 소재지/거주지	장안구	225	6	2.7	17	7.6	91	40.4	96	42.7	15	6.7
	권선구	256	10	3.9	26	10.2	102	39.8	96	37.5	22	8.6
	팔달구	134	5	3.7	13	9.7	48	35.8	56	41.8	12	9.0
	영통구	381	20	5.2	55	14.4	164	43.0	113	29.7	29	7.6

A5_2. 여러분이 가정에서 심리적 안전하다고 느끼나요?

○ [표 36]의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57.7%로 가장 높았다.

-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초등학생(65.9%)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48.6%)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권선(61.3%), 장안구(58.2%), 팔달구(56.0%), 영통구(55.6%)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가정에서 심리적 안전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응답자별로는 초등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장안구가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 밖 아동의 긍정적 인식률이 처음으로 고등학생을 넘어선 점을 고려할 때, 가정과 연계한 아동친화적 프로그램을 통한다면, 타 문항에서도 학교 밖 아동들의 긍정적 인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6] 여러분이 가정에서 심리적 안전하다고 느끼나요?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996	10	1.0	24	2.4	332	33.3	575	57.7	55	5.5	
응답자	초등학생	296	1	0.3	5	1.7	81	27.4	195	65.9	14	4.7
	중학생	314	2	0.6	4	1.3	108	34.4	182	58.0	18	5.7
	고등학생	292	5	1.7	12	4.1	112	38.4	142	48.6	21	7.2
	학교 밖 아동	94	2	2.1	3	3.2	31	33.0	56	59.6	2	2.1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225	1	0.4	5	2.2	79	35.1	131	58.2	9	4.0
	권선구	256	4	1.6	3	1.2	79	30.9	157	61.3	13	5.1
	팔달구	134	1	0.7	3	2.2	42	31.3	75	56.0	13	9.7
	영통구	381	4	1.0	13	3.4	132	34.6	212	55.6	20	5.2

A5_3.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에 대해 만족하나요?

○ [표 37]의 응답별 결과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38.2%로 가장 높았다.

- 응답자별로는 ‘그렇다’의 중학생(47.1%)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25.7%)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39.4%), 팔달구(38.8%), 권선구(38.7%), 장안구(35.1%)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지역의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응답자별로는 중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장안구가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대적으로 학교 밖 아동의 부정적 인식률이 다른 학생들이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지역 체육 및 문화활동 참여과정에서 제도권 내의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보이지 않는 따돌림이 있는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7]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에 대해 만족하나요?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996	40	4.0	73	7.3	380	38.2	378	38.0	125	12.6	
응답자	초등학생	296	10	3.4	22	7.4	76	25.7	149	50.3	39	13.2
	중학생	314	4	1.3	14	4.5	148	47.1	112	35.7	36	11.5
	고등학생	292	17	5.8	26	8.9	121	41.4	94	32.2	34	11.6
	학교 밖 아동	94	9	9.6	11	11.7	35	37.2	23	24.5	16	17.0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225	5	2.2	12	5.3	79	35.1	103	45.8	26	11.6
	권선구	256	9	3.5	12	4.7	99	38.7	106	41.4	30	11.7
	팔달구	134	5	3.7	5	3.7	52	38.8	53	39.6	19	14.2
	영통구	381	21	5.5	44	11.5	150	39.4	116	30.4	50	13.1

A5_4. 여러분은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표 38]의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8.0%로 가장 높았다.

-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초등학생(56.4%)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42.5%)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권선구(53.1%), 장안구(49.8%), 영통구(44.9%), 팔달구(44.0%)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응답자별로는 중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장안구가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여러분은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996	16	1.6	65	6.5	385	38.7	478	48.0	52	5.2	
응답자	초등학생	296	3	1.0	22	7.4	94	31.8	167	56.4	10	3.4
	중학생	314	4	1.3	11	3.5	140	44.6	143	45.5	16	5.1
	고등학생	292	8	2.7	23	7.9	116	39.7	124	42.5	21	7.2
	학교 밖 아동	94	1	1.1	9	9.6	35	37.2	44	46.8	5	5.3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225	5	2.2	9	4.0	92	40.9	112	49.8	7	3.1
	권선구	256	3	1.2	15	5.9	90	35.2	136	53.1	12	4.7
	팔달구	134	2	1.5	10	7.5	51	38.1	59	44.0	12	9.0
	영통구	381	6	1.6	31	8.1	152	39.9	171	44.9	21	5.5

A5_5.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아동 중심의 문화활동이나 취미활동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표 39]의 응답별 결과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35.2%로 가장 높았다.

-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중학생(43.0%)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25.0%)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36.7%), 권선구(36.3%), 팔달구(33.6%), 장안구(32.4%)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지역에서 아동 중심의 문화활동이나 취미활동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응답자별로는 중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장안구가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교 밖 아동의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38.3% 높게 나타났다.

[표 39]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아동 중심의 문화활동이나 취미활동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996	30	3.0	69	6.9	351	35.2	348	34.9	198	19.9	
응답자	초등학생	296	3	1.0	26	8.8	74	25.0	134	45.3	59	19.9
	중학생	314	6	1.9	7	2.2	135	43.0	113	36.0	53	16.9
	고등학생	292	14	4.8	27	9.2	116	39.7	85	29.1	50	17.1
	학교 밖 아동	94	7	7.4	9	9.6	26	27.7	16	17.0	36	38.3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225	6	2.7	8	3.6	73	32.4	94	41.8	44	19.6
	권선구	256	4	1.6	11	4.3	93	36.3	100	39.1	48	18.8
	팔달구	134	5	3.7	8	6.0	45	33.6	51	38.1	25	18.7
	영통구	381	15	3.9	42	11.0	140	36.7	103	27.0	81	21.3

A5_6.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영유아가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무료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 40]의 응답은 미취학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5.0%로 가장 높았다.

-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권선구(57.1%), 팔달구(50.0%), 장안구(36.8%), 영통구(36.1%)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지역의 스포츠시설이나 놀이시설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부정적 응답률 또한 41.0%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장안구와 영통구는 시설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보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응답률이 높게 나와, 지역에 따른 시설의 질적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0]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영유아가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무료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0	0	0.0	41	41.0	45	45.0	5	5.0	9	9.0	
응답자	초등학생	-	-	-	-	-	-	-	-	-	-	
	중학생	-	-	-	-	-	-	-	-	-	-	
	고등학생	-	-	-	-	-	-	-	-	-	-	
	학교 밖 아동	-	-	-	-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0	0.0	41	41.0	45	45.0	5	5.0	9	9.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19	0	0.0	11	57.9	7	36.8	1	5.3	0	0.0
	권선구	35	0	0.0	12	34.3	20	57.1	1	2.9	2	5.7
	팔달구	10	0	0.0	4	40.0	5	50.0	0	0.0	1	10.0
	영통구	36	0	0.0	14	38.9	13	36.1	3	8.3	6	16.7

A5_7.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영유아 중심의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 41]의 미취학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평균 40.0%로 가장 높았다.

-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장안구(52.6%), 팔달구(40.0%), 영통구(38.9%), 권선구(34.3%)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지역이 영유아 중심의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장안구의 부정적 인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장안구의 영유아 중심의 문화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영유아 중심의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0	0	0.0	40	40.0	38	38.0	8	8.0	14	14.0	
응답자	초등학생	-	-	-	-	-	-	-	-	-	-	
	중학생	-	-	-	-	-	-	-	-	-	-	
	고등학생	-	-	-	-	-	-	-	-	-	-	
	학교 밖 아동	-	-	-	-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0	0.0	40	40.0	38	38.0	8	8.0	14	14.0
학교 소재지/거주지	장안구	19	0	0.0	10	52.6	7	36.8	1	5.3	1	5.3
	권선구	35	0	0.0	12	34.3	15	42.9	5	14.3	3	8.6
	팔달구	10	0	0.0	4	40.0	3	30.0	0	0.0	3	30.0
	영통구	36	0	0.0	14	38.9	13	36.1	2	5.6	7	19.4

A5_8. 여러분은 현재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일과 양육 간에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 42]의 미취학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6.0%로 가장 높았다.
 -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권선구(57.1%), 장안구(47.4%), 팔달구(40.0%), 영통구(36.1%)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지역에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일과 양육 간에 균형을 잘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팔달구는 긍정적 인식률보다 부정적 인식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팔달구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일/가정 양립문화의 정착이 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2] 여러분은 현재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일과 양육 간에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0	1	1.0	36	36.0	46	46.0	10	10.0	7	7.0	
응답자	초등학생	-	-	-	-	-	-	-	-	-	-	
	중학생	-	-	-	-	-	-	-	-	-	-	
	고등학생	-	-	-	-	-	-	-	-	-	-	
	학교 밖 아동	-	-	-	-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	1.0	36	36.0	46	46.0	10	10.0	7	7.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19	0	0.0	8	42.1	9	47.4	1	5.3	1	5.3
	권선구	35	0	0.0	8	22.9	20	57.1	5	14.3	2	5.7
	팔달구	10	0	0.0	5	50.0	4	40.0	0	0.0	1	10.0
	영통구	36	1	2.8	15	42.1	13	36.1	4	11.1	3	8.3

A5_9.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영유아 자녀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예: 접근성, 운영시간, 비용 등)

○ [표 43]의 미취학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8.0%로 가장 높았다.

- 학교 소재시/거주지별로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권선구(60.0%), 장안구(47.4%), 영통구(44.4%), 팔달구(20.0%)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지역에서 제공하는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영유아 자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팔달구는 부정적 인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팔달구 내 영유아의 문화 및 여가활동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3]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영유아 자녀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예: 접근성, 운영시간, 비용 등)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0	3	3.0	31	31.0	48	48.0	10	10.0	8	8.0	
응답자	초등학생	-	-	-	-	-	-	-	-	-	-	
	중학생	-	-	-	-	-	-	-	-	-	-	
	고등학생	-	-	-	-	-	-	-	-	-	-	
	학교 밖 아동	-	-	-	-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3	3.0	31	31.0	48	48.0	10	10.0	8	8.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19	0	0.0	9	47.4	9	47.4	1	5.3	0	0.0
	권선구	35	0	0.0	8	22.9	21	60.0	3	8.6	3	8.6
	팔달구	10	2	20.0	4	40.0	2	20.0	1	10.0	1	10.0
	영통구	36	1	2.8	10	47.4	16	44.4	5	13.9	4	11.1

IV. 정책제언

1

분석결과 요약

- 지역사회에서 존중 항목에 대한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지역사회로부터 받는 존중 정도를 파악한 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긍정적 응답율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부정적 응답률 보다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아동의 경우,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생보다 긍정적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 미취학 아동 보호자의 긍정적 응답률은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아동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부정적 인식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참여 항목에 대한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지역사회에서의 아동의 여가 및 가정생활의 권리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높은 긍정적 응답율을 보였다.
 -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아동의 경우, 초등학생 및 중학생보다 긍정적 응답률은 약 10%p 낮았으나, 부정적 응답률은 2배 가까이 높게 조사되었다.
 - 미취학 아동 보호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응답률은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아동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부정적 인식률은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지역사회에서 건강과 교육 보장 항목에 대한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지역사회에서의 아동의 건강 및 교육의 권리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높은 긍정적 응답율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영유아 자녀의 발달과 육아를 위한 상담 및 보건 의료 기관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은 낮게 나타났다.
 -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아동의 경우,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결과처럼 높은 긍정적 응답율을 보였다.
 - 미취학 아동 부모는 아동과 유사한 긍정적 응답율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부정적 응답률은 높게 나타났다.

○ 지역사회에서 안전과 보호 항목에 대한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전반적으로 안전한 거리, 심리적 불안감, 폭력, 지원체계, 생활안전 측면에서 긍정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초등학생의 긍정적 응답률이 높았으며, 지역은 권선구 및 장안구의 긍정적 응답률이 높게 조사되었다.
- 하지만, 학교 밖 아동의 아동 폭력 및 학대 관련 지원기관에 대한 홍보 및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 개발이나 주거지 계획을 할 때 아동을 고려한다는 문항에서도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41.5%로 높게 도출되었다.
- 한편, 가정으로부터의 안전감은 모든 응답자가 매우 긍정적인 응답률이 나타났다.

○ 지역사회에서 여가와 가정생활 보장 항목에 대한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지역사회에서의 아동의 여가 및 가정생활의 권리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 응답률이 부정적 응답률 및 “모르겠다”는 응답률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아동의 경우,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생보다 긍정적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 주목할 점은 학교 밖 아동의 경우, 유일하게 가족으로부터 안정감에 대한 항목에서 고등학생보다 긍정적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미취학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아동의 여가 및 가정생활의 권리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보다 긍정적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제언

○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계된 아동영향평가 제도 구축

- 아동영향평가가 수원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동영향평가는 하나의 차원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과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에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박금식 외, 2017, p.96).
-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친화적인 법체계와 아동권리 전담조직 설치, 아동권리 홍보 및 아동의 참여, 아동 관련 예산 등의 아동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

이 구축된 이후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 아동영향평가 전담인력 확보

- 아동영향평가의 실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동영향평가에 참여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아동영향평가 평가부서와 담당부서 공무원의 아동영향평가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수원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아동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있다고 하더라도 1명만으로는 효과적인 운영이 어렵다. 이에 박금식 외(2017)가 주장한 바와 같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별도의 팀 단위의 조직 구성 또는 동일팀 내에서 아동영향평가 전담인력 지정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 저 연령인구 맞춤형 홍보 전략 수립

-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높게 조사되었다.
- 이는 홍보 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존의 홍보수단이 연령이 낮은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다.
- 이에 저 연령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홍보수단 및 내용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하지만, 수원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저 연령인구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하기에는 행·재정적 한계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학교-지역 시민단체 또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저 연령인구를 위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저 연령인구에 대한 정책참여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제공

-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지역사회에서의 의사결정 참여 만족도가 높게 도출되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 이는 수원시 및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참여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및 모의 정책참여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학교 밖 아동 관련 시설에 대한 홍보 강화

- 설문조사 결과, 학교 밖 아동은 가정으로부터 안정감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고

등학생 보다 긍정적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 이는 학교 밖 아동이 상대적으로 수원시의 아동친화도시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노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학교 밖 아동 관련 시설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남승연·이나련, 2016,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례 연구, 경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박금식·하정화·손주영·박지영, 2017,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부산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2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영향평가 매뉴얼

이영안, 2017,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2018-2021)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_____, 2019,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이영안·이홍재, 2018, “아동친화정책 PR 효과 요인의 구조적 관계 연구: A시 지역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3권 1호, pp.189-210

〈온라인 자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http://childfriendlycities.kr/>



발행인 | 최병대

발행처 |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031.220.8001

www.suwon.re.kr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수원시의 정책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